

1970년대 민중시에 나타나는 장소 연구*

조효주**

|| 차례 ||

- I. 일상적 장소와 민중의 현실인식
- II. 장소의 훼손과 울분의 내면화
- III. 장소 회복을 위한 저항과 투쟁
- IV. 참된 장소의 회복과 현실극복 가능성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경림·김지하·정희성의 1970년대 민중시에 나타나는 장소를 살펴보고, 훼손되거나 빼앗긴 장소를 통해 드러나는 민중의 현실인식과 현실 대응 방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잃어버린 참된 장소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이 된다. 민중시에 나타나는 장소는 크게 ‘폭압적 현실에 의해 훼손되거나 빼앗긴 장소’와 ‘참된 장소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의 힘에 의해 훼손되거나 빼앗기는 장소는 민중의 일터와 관련된 장소이거나 평범한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이다. 이런 장소의 훼손은 생명과 신체의 훼손 및 일상이 파편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 때문에 민중은 분노와 좌절을 겪지만 이 감정은 표출되지 못하고 내면화된다. 말하지 못하는 서발턴으로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은 그들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다른 장소는 훼손된 장소를 참된 장소로 회복하기 위해 투쟁을 벌여 나가는 곳으로, 일상적 삶과 관련된 장소뿐 아니라 충청도·강원도·경상도 등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467)

**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의 지역, 그리고 민중이 발 딛고 살아가는 실존적 장소로서의 ‘이곳’이다. 이 장소들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참된 장소를 회복하기 위해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이 ‘온몸’을 던져 폭압적 현실과 투쟁하는 장소이다.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민중의 모습에서 훼손된 장소를 참된 장소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온몸을 던지는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주제어 : 장소, 투쟁, 내면화, 현실인식, 장소 훼손, 장소 회복

1. 일상적 장소와 민중의 현실인식

본 연구는 신경림·김지하·정희성 시를 중심으로 1970년대 민중시에 나타나는 삶의 구체적인 장소를 살펴봄으로써, 장소를 통해 드러나는 민중의 현실인식 및 현실 대응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참된 장소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970년대는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민중의 삶은 물론 민중의 의식이 문학에 수용되는 시기였으며, 『창작과비평』이 민족문학을 이끄는 가운데 민중시 계열의 작가들이 민중의 일상적 삶, 즉 그들의 생활을 시로 형상화함으로써 1970년대 민중시는 1960년대의 참여문학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성격을 형성하였다. 1970년대 민중시의 중심에는 신경림, 김지하, 정희성, 고은, 조태일 등이 위치한다. 따라서 이들 작품이 1970년대 민중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몇 가지 유의미한 논의를 살펴보면, 류찬열(2008)¹⁾은 「1970년대 한국 현대시의 계보와 유형 연구를 위한 시론」에서 1970년대 문학이 1960년대 문학과 변별되

는 중요한 지점이 사회 모순의 심화 및 모순된 사회에 대한 문학적 응전에 대한 요구가 시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서준섭(1994)²⁾ 역시 1970년대 한국문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민중의 발견과 민중생활의 문학적 수용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김나현(2018)³⁾은 1970년대 민중시의 주체 구성 전략을 살피는 논의에서 주체의 형상은 몇 가지의 이항대립으로 지탱되지만 이는 가상의 분할선이며 결국 각각의 대립이 얹혀있다고 설명한다. 오수현(2008)⁴⁾은 1970년대 민중시의 진술방식인 구술성에 주목하여, 신경림은 후렴구의 반복과 병치구조를 활용한 민요를, 김지하는 판소리 창에 가까운 열거와 반복, 장단과 음조를 활용하여 민중의 정서적 감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박연희(2016)⁵⁾의 경우에는 '창비'와 '문지'라는 두 매체가 민족과 자유, 민중주의와 지성주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등 대립을 이루고 있으나 분단, 계급, 비민주,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테제를 공유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연구는 한국의 현대시사에서 1970년대라는 특정한 시대가 보여주는 민중시의 흐름과 성격을 뚜렷하게 밝혀주었으며, 1970년대의 민중시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민중시의 특성을 드러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대체로 민중들의 구체

1) 류찬열, 「1970년대 한국 현대시의 계보와 유형 연구를 위한 시론」, 『우리문학연구』 제24집, 우리문학회, 2008, pp.203-221.

2) 서준섭, 「현대시와 민중- 1970년대 민중시에 대하여」, 『문학사와 비평』 제3집, 문학과비평학회, 1994, pp.35-55.

3) 김나현, 「1970년대 민중시의 주체 구성- 민중시를 둘러싼 몇 가지 분할에 대하여」, 『한국시학연구』 제53집, 한국시학회, 2018, pp.9-34.

4) 오수현, 「1970년대 민중시의 구술성에 대한 소론 - 신경림의 『새재』와 김지하의 『오적』을 중심으로」, 『문예시학』 제19집, 문예시학회, 2008, pp.43-62.

5) 박연희, 「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시 담론」, 『상허학보』 제41집, 상허학회, 2014, pp.501-538.

적인 삶을 들여다보고, 일상적 삶을 통해서 민중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 삶과 현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일상을 만들어가는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민중시에 나타나는 장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1970년대 민중들의 삶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신경림·김지하·정희성의 작품은 우리나라 역사가 걸어온 길, 특히 민중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민중사와 다름없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의 1970년대 시에서 보여주는 장소들, 즉 김지하 시의 ‘황톳길’, ‘수수밭’, ‘돌밭’, ‘판잣집’ 등과 신경림 시의 ‘장터’, ‘공사장’, ‘산동네’, ‘수몰지역’ 등과 정희성 시의 ‘탄광’, ‘대장간’, ‘지하도’, ‘별판’, ‘논바닥’ 등에서 민중들이 겪는 현실적 삶과 그 속에서 민중들이 갖게 되는 현실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훼손되거나 상실된 장소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현실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경림·김지하·정희성의 1970년대 작품에 나타나는 장소 연구는 역사서에 기록되지 못한 ‘개인’들의 생동하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1970년대를 살았던 약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신경림·김지하·정희성의 19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시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삶의 장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소와의 관련성 아래 민중과 민중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에드워드 쥘프, 이-푸 투안 등의 지리학과 인문지리학 이론에서 장소 개념을 빌려오는 한편, 비판지리학에서 공간과 장소를 재개념화한 도린 메시의 장소 개념에서도 일부 도움을 받고자 한다.⁶⁾ 이들 이론이 민중시에 나타나는 일상적 장소의 의미 및 장소를 통해 드러

나는 민중의 현실인식을 살피는 데 얼마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소는 ‘환경·경관·의식·일상적인 일,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이나 가정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것이 뒤섞여 있는 데서, 또한 다른 장소와의 맥락들 속에서 느껴’지고,(에드워드 텔프)⁷⁾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할 때 공간은 장소가’ 되며,(이-푸 투안)⁸⁾ ‘장소란 정체성과 관련되며 관계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마르크 오제)⁹⁾ 또한 ‘모든 장소는 서로 겹치고, 서로 섞이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존 도넛)¹⁰⁾ ‘장소의 정체성은 고유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즉 다른 장소들과의 특정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된다.(도린 매시)¹¹⁾ 이처럼 장소란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특정 장소가 갖는 정체성이나 의미는 고

6) 장소가 갖는 특수성이 인간의 경험과 인식, 정체성과 관련 있다고 보는 인문지리학과 달리 비판지리학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장소의 특수성 및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 필자는 두 이론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의 장소가 갖게 되는 특수성 또는 정체성은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 정체성에 의해 형성되는 한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사회의 구조와 삶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정치와 사회의 변화가 시시각각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는 한 장소의 정체성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장소 내부의 영향보다 외부의 영향, 즉 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 장소의 의미와 정체성은 내부 또는 외부 어느 한 쪽의 영향 속에서만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문지리학과 비판지리학의 장소 이론 중 하나만 타당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에 나타나는 장소의 특수성이나 정체성을 파악할 때 인문지리학과 비판지리학의 장소 이론들을 두루 참고할 계획이다.

7) 에드워드 텔프,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p.77.

8)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p.19.

9) 마르크 오제, 이상길·이윤영 옮김, 『비장소』, 아카넷, 2017, p.97.

10) 에드워드 텔프, 위의 책, p.77.

11) 도린 매시, 정현주 옮김,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p.220-223.

정된 채 영원불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체성과 의미를 띠게 된다. 장소 개념을 살필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장소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 지역, 지형이나 경험 가능한 외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삶의 거주지로서의 공간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물론 외관이나 지형 등이 장소가 갖는 속성의 하나이기는 하다. 그러나 인간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구체적인 일상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외관과 지형 등은 ‘장소’라는 의미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장소는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실존공간, 즉 일상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 될 때 비로소 ‘장소’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간이 인간의 구체적인 일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획득할 때 다른 장소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소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970년대의 민중이 구체적인 일상을 이어간 장소들 역시 실존공간으로서 민중의 경험, 인식, 문화와 더불어 다른 장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에 나타나는 ‘장소’를 인간의 생물학적 필요 및 생활 중심지로서의 체험적 거주지뿐 아니라 시적 주체의 내면의식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소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을 확장하여 다루고자 한다. 실재하는 모든 장소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신경림·김지하·정희성의 시에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1970년대 민중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가 아닌 일상과 관련된 실제적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경림·김지하·정희성의 1970년대 시를 대상으로, 먼저 민중시에 나

타나는 생활의 장소를 파악하여 민중의 삶의 세목은 물론 현실인식 및 현실 대응 방식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참된 장소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참된 장소의 회복은 곧 민중의 현실극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장소의 훼손과 울분의 내면화

대한민국의 1970년대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못했던 시기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힘을 갖지 못한 농민들과 노동자, 도시 변두리에 거주하는 도시빈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말할 수 없는 서발턴으로 사는 삶을 피할 수 없었다. 농민들은 정부의 산업화 우선 정책에 의해 소외된 삶을 살았으며, 생활이 갈수록 피폐해지자 삶의 터전이자 정신적 토대였던 농촌을 떠나 도시 변두리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농의 결과는 도시빈민이라는 또 다른 계층을 만들어냄으로써 민중의 삶은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 폭압적 현실이 지배하는 이 시기의 특성상 1970년대에 창작된 많은 문학작품들이 당대인의 삶, 특히 민중들의 고통과 울분에 찬 삶을 그려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신경림은 민중들의 삶의 세목을 매우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여타 민중 시인들처럼 신경림이 민중이라는 집단의 바깥에 있는 지식인으로 위치하면서 민중을 시적 대상으로서 세밀하게 관찰한 데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 그 자신이 민중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외되고 억압 받는 민중의 삶을 온몸으로 체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¹²⁾ 그러한 체험은 1970년대에 발간한 시집 『농무』와 『새재』

에 잘 드러난다. 특히 『농무』에서는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과 같은 약자들의 일상적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구체적인 장소들과 그리고 거기 깃들어 있는 내면화된 민중¹²⁾의 좌절과 분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날 끌려간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다.

소리개차가 감석을 날라 붓던 버럭더미 위에

민들레가 피어도 그냥 चु던 사월

지까다비를 신은 삼촌의 친구들은

우리 집 봉당에 모여 소주를 췌다

나는 그들이 주먹을 떠는 까닭을 몰랐다

<...>

전쟁이 끝났는데도 마을 젊은이들은

하나하나 사라져선 돌아오지 않았다.

- 신경림, 「폐광」 부분

12) 신경림은 등단 다음 해인 1957년 낙향하여 농사를 짓거나 광산과 공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방물장수와 아편 거간꾼들을 따라 방랑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생활은 서울로 돌아오는 1965년까지 계속되었다.

13) 강정구는 신경림 시에 나타나는 ‘민중’을 자본·권력과 대립하고 그것에 맞서서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체제에 순응하고 모방하는 민중상을 보여준 것으로 보았다.(강정구, 『신경림과 민족문학 다시 읽기』, 국학자료원, 2014. pp.61-62.) 물론 민중의 의미를 파악할 때 성급하게 민중과 자본·권력 간의 이항대립 관계를 설정하고, 그 틀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민중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경림 시에 등장하는 민중들을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농민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고통이 대부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산업화 과정에서의 철저한 소외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농민의 분노와 울분은 결국 폭압적인 권력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국가 정책에 순응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차이만을 경험하기 때문에 발생한 감성’이라고 보는 견해는 온전히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신경림의 시에는 유독 광산과 관련된 것이 많다. 그는 「나의 詩 · 나의 詩論」에서 「폐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준다.¹⁴⁾ 고향에 있던 광산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놀이터였으며, 한때 가족이 경영에 참여한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인민군 패잔병을 피해 광산에 숨어 있던 광부 두 명을 헌병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광산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은 이웃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광산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폐광」은 광산과 관련된 신경림의 유년 시절의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마을에서 가까운 ‘광산’이라는 장소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놀이터에 불과하지만, 빗만 늘어나는 농촌에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광산은 소중한 일터다. 그래서 화자의 삼촌과 삼촌의 친구들, 그리고 화자의 친구 아버지들도 위험한 광산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광산은 한때 호황을 누리며 번창하던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폐광이 되고, 귀신의 울음만 들리는 화자에게 두려운 장소가 되었다. 시에는 폐광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날 끌려간 삼촌”, “낙반으로 깔려죽은 내 친구들의 아버지”, “마을 젊은이들은/ 하나하나 사라져선 돌아오지 않”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계속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폐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의 첫 행은 화자의 삼촌이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삼촌에게 이 광산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일터로서의 의미를 갖는 장소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은 누군가에게 끌려가 다시는 광산으로 돌아오지 않고, 삼촌의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는 삼촌을 생각

14) 신경림, 『문학과 민중』, 민음사, 1977, pp.150-154.

하며 “주먹”을 떤다. 주먹을 떠는 행위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때, 삼촌이 끌려간 일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산에서 “낙반으로 깔려죽은” 친구들의 아버지와 “사라져선 돌아오지 않”는 젊은이들 역시 피할 수 없는 폭압적 현실의 힘에 의해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다. 이처럼 광산은 일자리와 놀이터가 되어주던 장소에서 부당한 힘이 작용하는 순간 “빈 금구덩이서는 대낮에도 귀신이 울어”대는 원한으로 가득 찬 장소로 변하게 된다.

일터와 놀이터로 기능하던 장소가 불행과 죽음의 장소로 변해버린 현실을 광산 관련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현실을 파악한 그들은 주먹을 떨었고 술로 분노를 삭히고자 한다. 그렇지만 삼촌의 친구들을 보면 주먹을 떠는 행위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저 분노하는 감정을 술과 함께 안으로 삼키는 데서 끝난다. 특히 어린 화자는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삼촌의 친구들이 “주먹을 떠는 까닭”조차 알지 못하기에 분노의 감정조차 갖지 못한다. 이 시에서 ‘폐광’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가 가진 것이 없는 힘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면화하는 일뿐이다.

1970년대 신경림의 시에는 부조리한 현실에 분노하는 민중의 모습과 함께 현실에 좌절하는 모습도 드러난다.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서의 장소와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숨과 좌절은 현실의 피폐함을 드러내주는 기호가 된다.

우리는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에 모여/ 목내기 화투를 치고/ 내일은 장날.
장꾼들은 왓자지껄/ 주막집 뜰에서 눈을 툴다./ 들과 산은 온통 새하얗구나.
눈은/ 평평 쏟아지는데/ 쌀값 비료값 얘기가 나오고/ 선생이 된 면장
딸 얘기가 나오고/ 서울로 식모살이 간 분이는/ 아기를 뱃다더라. 어떡할

거나./ 술에라도 취해볼거나. 술집 색시/ 싸구려 분 뽕새라도 맡아볼거나./
우리의 슬픔을 아는 것은 우리뿐.

- 신경림, 「겨울밤」 부분

「겨울밤」(《한국일보》, 1965)은 1957년 낙향 이후 9년간의 방랑생활을 마친 뒤 처음으로 발표한 작품으로 신경림의 시세계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농민과 노동자와 도시빈민 집단인 “우리” 속에서 발언하는 시적주체의 목소리는 지식인으로서의 목소리가 아닌 민중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통해 민중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시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 장소는 “협동조합 방앗간 뒷방”이다. 협동조합 사무실이나 면사무소와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와는 달리 이곳은 힘없는 사람들, 곧 “우리”들만의 장소이다. 이곳에서 농민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나아가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면서 “우리”라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런 장소에서 “우리”는 묵내기 화투를 친다. 얼핏 일이 없는 겨울날의 한가한 농촌 풍경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이내 “쌀값 비료값”에 대한 걱정과 “서울로 식모살이 갔던 분이는/ 아기를 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드러난다. 이들을 슬픔에 젖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농사를 지을수록 늘어가는 빚뿐만이 아니라 가진 자의 딸은 선생이 되고 가지지 못한 자의 딸은 식모살이 하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게 되는 차별과 소외의 현실이다. “우리의 슬픔을 아는 것은 우리뿐”, “우리의/ 괴로움을 아는 것은 우리뿐”이라는 화자의 발언은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얼마나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농민들이 모인 “방앗간 뒷방”은 지리적 위치를 지시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이들이 중

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이다. 이들이 뒷방에서 쏟아내는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은 장소의 바깥으로 뺀어 나가는 사회 속의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 “뒷방”이라는 장소 그 속에서만 존재하는 농민들의 푸념이나 하소연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 이들 푸념과 하소연은 “술에라도 취해볼거나. 술집 색시/ 싸구려 분 냄새라도 맡아볼거나.”라는 자포자기하는 듯한 태도로 이어진다. 이들을 이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지만 이 시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현실극복에 대한 의지마저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볼 때 농민들의 좌절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목소리가 아닌 민중적인 이야기꾼의 목소리¹⁵⁾로 등장하는 김지하의 시적 주체의 현실인식 역시 신경림 시에 나타나는 민중들의 현실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혹자는 지식인 김지하의 시적 주체는 지식인 그 자체이므로 결코 민중의 시선과 민중의 현실인식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김지하의 시적 주체는 신경림이나 박노해의 시적 주체와는 다르다. 그러나 “작가가 참으로 민중의 참된 삶-살림 사는 것을 제 삶으로 성실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할 때 그는 곧 민중입니다.”¹⁶⁾라고 천명했던 것처럼, 김지하 자신이 민중의 삶을 자기 삶으로 이행하고자 충실히 노력했던 시인이었으므로, 그의 시의 주체가 민중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김지하의 1970년대 시에서는 민중의 삶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슬픔과 울분

15) 서준섭, 「현대시와 민중 -1970년대 민중시에 대하여」, 『문학사와 비평』 제3집, 문학사와비평학회, 1994, p.36.

16) 김지하, 『남녘땅 뱃노래- 김지하 이야기 모음』, 두레, 1985, p.281.

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참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들끓는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고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黃土』에서 민중의 좌절과 분노가 드러나는 장소는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장소가 아닌 “돌밭”, “빈 들녘”, “검은 지붕”과 같이 삭막하고 어두운 공간 이미지로 제시된다.

번개와 폭풍의 밤에/ 스물일곱해의 굶주림의 곤혹에/ 가장 모질은 돌밭에
삽질을 한다/ 너는 그것을 원했다. 손으로 일군 땅/ 네 피가 아직 더운 흙가
슴의 모진 곳/ 좌절당한 반역의 이 불밭에 운명에/ 너를 묻기 위해/ 뜬 눈
의 주검/ 더 없이 억센 뜬 눈의 주검/ 염도 새끼줄도 관조차도 없다/ 네겐
한권의 함석헌과 한송이의 박꽃뿐/ 너는 그것을 원했다. 황량한 옥금리들
녘/ 황토로 변하기를 너는 원했다

- 김지하, 「매장」, 부분

장소 이미지를 통해 민중의 삶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 「매장」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너”의 주검을 묻기 위해 “가장 모질은 돌밭”에 삽질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다. “좌절당한 반역의 이 불밭에 운명에/ 너를 묻”기 위해 삽질을 한다는 화자의 진술은 죽은 이가 왜 “억센 뜬 눈”의 주검으로 화자 앞에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주검을 받아줄 땅이 없어 거친 돌밭에 매장되어야 하는 “너”가 죽음을 맞게 된 원인은 그가 꿈꾸었던 “반역”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역이 아닌 “원”(바람, 願)이었다. ‘바람’이 ‘반역’으로 잘못 번역된 것이다. 의도적으로 “너”의 바람을 반역으로 오역한 것은 아마도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일 것이다. “너”의 죽음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너”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너”라는 인물은 자본이라는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시되던 산업화 시대에 가진 것이라고는 “한 송이의 박꽃”과 “한권의 함석헌”뿐인 사람이다. 단순히 ‘궁핍하다’, ‘가난하다’라는 표현으로 재단할 수 없는 삶, 황량한 들녘을 황토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상만을 가진 사람이다. “너”가 가진 물질적 재산인 “한권의 함석헌”을 보면 그가 무엇을 추구했던 인물인지 알 수 있다. 함석헌은 평생 일관된 사상과 신념으로 폭력을 거부하고 권위에 저항했던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상가이자 민중운동가이다. 따라서 “너”가 가진 “한권의 함석헌”이란 곧 ‘저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권의 함석헌과 한송이의 박꽃”을 살펴보면, 함석헌과 박꽃은 “너”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석헌의 책은 ‘저항’을, 그리고 한 송이의 박꽃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상징한다. 이를 바탕으로 “너”의 정체성을 밝혀보면, “너”는 부조리한 1970년대의 사회현실 속에서 개인의 영달이 아닌 모든 생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름진 들녘(“황토”)을 만들기 위해 눈을 부릅뜬 채 세상과 “치열한 뒷발”로써 싸웠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박꽃같이 순수했던 자기의 이상과 삶을 빼앗긴 채 죽은 인물이다. “너”가 억울하게 죽게 된 것은 “너”의 간절한 바람이 현실에서 “반역”으로 오역되었기 때문이다. 화자가 말하는 “반역”은 “너”를 죽인 자들의 시선을 드러내는 아이러니다. 화자는 “반역”으로 몰아 “너”를 죽인 잔인한 세상(“모질은 돌밭”)에서 죽어서도 꺾이지 않는 저항의 “목소리”를 들으며 통곡한다. 그러나 ‘나와 너’의 분노와 슬픔을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거칠고 황량한 돌밭에 깊이 묻히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화자가 억울한 주검을 묻기 위해 삼질을 하는 돌밭은 화자와 “너” 그리고 “황량한 옥금리들녘”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민중이 처한 현

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황량한 땅, 이 “들녘”은 어떤 인간의 일상도 받아주지 않는 죽음의 장소이다. 「밤」에서도 일상을 훼손당한 민중의 모습을 “검은 지붕”, “굴뚝” 같은 어두운 장소 이미지를 통해 보여준다.

검은 지붕들이/ 굴뚝들이 식어서 죄는 거야/ 봐, 저 소리가 들리지/ 저 소리
 마저 이젠 죽어가/ 밤은 좀처럼 지새지조차 앓는데 그래/ 그럴거야/
 나처럼 묶여 버리고/ 검은 지붕들이 내일 또다시 달아올랐다/ 굴뚝들이 시
 뻘정계 타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묶여 버리고 말거야/ 밤엔 식어서 죄일대
 로/ 봐, 죄일대로 죄인걸, 저것 봐/ 붙여진 창 하나/ 웅송거리는 그림자 하
 나/ 깊을수록 잠 못이루는 거야/ 밤이 깊을수록/ 머리칼 쥐어뜯으며/ 그래.

- 김지하, 「밤」 전문

이 시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한다. 검은 지붕과 굴뚝이 “시뻘정계 타올라”기는 낮 시간과 열기가 식어서 “죄일대로 죄인” 밤 시간이다. 밤과 낮의 두 시간대는 검은 지붕과 굴뚝이라는 장소와의 관계뿐 아니라 화자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검은 지붕과 굴뚝은 낮에는 달아오르거나 시뻘정계 타오르지만 밤이 되면 식어서 누군가(“그림자”)를 죄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화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붕과 굴뚝의 변화에 따라 누군가가 묶이는 상황이 자신의 처지와 동일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힘에 의해 묶여 버린 자신과 “그림자”의 상황 속에서 화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이런 불안감은 머리칼을 쥐어뜯는 “그림자”를 통해 제시된다. 화자의 불안의 근원은 검은 지붕과 굴뚝이라는 장소 이미지에서 쉽게 연상되는 것은 공장이다. 당시의 공장이란 노동 착취와 저임금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던, 노동자를 한낱 부품으로 소비하던 비인간적인 일터였

다. 이와 같은 공장의 정체성은 다른 장소들과의 관계, 특히 쾌적한 근무환경과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는 일터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1970년대는 박정희 정부가 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시기였는데, 국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기업가가 사업을 확장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업의 이윤을 불리는 데 사용했던 산업화의 산물인 공장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기계를 돌리면서도 노동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상에서 시간과 건강과 가족을 빼앗았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부르짖으며 분신을 한 사건을 통해 당시의 산업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로 이룬 경제성장 속에서 노동자들의 빈곤은 오히려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발독재가 낳은 사회적 모순이었다. 「밤」은 이러한 모순적인 산업화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검은 지붕과 굴뚝이 식어서 죄면 “나처럼 묶여 버리고” 말 것이라는 화자의 진술은 그를 묶는 것 역시 ‘검은 지붕과 굴뚝’을 가진 공장이라는 장소임을 말해준다. 공장은 낮에는 시뻘겋게 타오르면서 화려한 경제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지만, 그 이면이라 할 수 있는 밤이 되면 어떤 “목소리”도 서서히 죽게 되고 “지새지조차 않는”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묶이고 죄이게 된다. 화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묶여 버린 자신처럼 다른 이들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염려는 곧 화자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다. “그림자 하나”가 “머리칼 쥐어뜯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화자의 눈에 비친 “그림자”는 현실에 좌절하는 화자의 모습이 투사

된 이미지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대표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이 시에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잠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식어서 죄는 ‘검은 지붕과 굴뚝’, 즉 공장과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노동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화자와 “그림자”는 외부의 힘에 의해 묶여 있고 밤이면 죄이는 형벌 같은 일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머리칼을 쥐어뜯는 행위으로써 깊은 좌절감과 고통을 드러낼 뿐이다. 「매장」과 「밤」이 장소를 통해 훼손된 일상과 좌절하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들녘」에서는 장소뿐 아니라 다양한 청각(“소리”) 이미지를 통해 민중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늙은 산맥이 찢어지는 소리/ 그것은 허물어진 옛 성터에/ 미친 듯이
타오르는 붉은 산딸기와/ 꽃들의 외침소리/ 그것은 그리고/ 시드는 힘
과 새로 피어오르는 모든 힘의/ 기인 싸움을 알리는 쇠나팔소리/ 내 귓속에
서/ 또 내 가슴 속에서 울리는/ 피끓는 소리// 잔잔하게/ 저녁 물살처럼 잔
잔하게/ 붓꽃이 타오르는 빈 들녘에 서면/ 무엇인가 자꾸만 무너지는 소리/
무엇인가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

- 김지하, 「들녘」 부분

화자가 주목하는 “한탄리 들녘”은 곡식을 길러내는 풍요로운 대지가 아닌 어떤 생명도 길러내지 못하는 “빈 들녘”이다. 들녘 앞에 붙은 관형어 “빈”은 (풍요로운 다른 땅과의 관계 속에서) 한탄리 들녘이 가지고 있는 폐허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준다. 텅 빈 들녘에서는 자연의 풍요 대신 온갖 소리들이 각자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은 자연스럽게 생성된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다. “늙은 산맥이 찢어지는 소리”, 옛 성터의 “산딸기와/ 꽃들의 외침소리”, “기인 싸움을 알리는 쇠나팔소리”, 화자의 귓속과 가슴속에서 울리는 “피끓는 소리”는 이

장소가 평화의 땅이 아니라 불화와 갈등의 땅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특히 “찢어지는”, “외침”, “싸움을 알리는”, “피끓는” 등과 같이 소리를 수식해주는 표현에서 이 땅이 힘든 싸움을 예비하고 있는 땅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빈 들녘”은 싸움을 준비하는가. 그것을 알려면 소리들의 근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각종 소리들이 등장하기 전 들녘에는 “무너져 가”는 “무엇”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리치”는 무엇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탄처럼 총소리가 울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들이 생성되게 된 원인, 즉 싸움을 준비하게 된 원인은 들녘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기 시작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리들은 무엇인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그 “무엇”이란 바로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실존적 장소일 것이다. 가족과 이웃들이 어울려서 일상을 살아가는 곳,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리의 주체들은 화자와 더불어 실존적 장소로서의 “한탄리 들녘”을 다시 세우기 위해 찢어지는 고통과 미친 듯 타오르는 뜨거운 외침, 그리고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소리로 모여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 이르면 화자의 힘찬 어조는 갑자기 약화되고, 첫 연에서처럼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을 듣게 된다. 이처럼 “기인 싸움을 알리는 쇠나팔소리”가 울렸음에도 싸우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은 화자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피어오르는” 생성의 힘을 갖지 못한 탓이다. 화자가 밭 딛고 있는 “들녘”은 소멸의 힘이 득세하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소멸의 힘에 의해 실존적 장소가 무너

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절망감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수동적인 태도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경림·김지하의 시들과는 달리 정희성의 시는 서정성과 어조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정희성의 시는 대체로 감정이 절제되고 어조가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데,¹⁷⁾ 그의 시가 일상적인 장소와 역사의 장으로서의 장소를 통해 민중의 현실인식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살피는 한편, 정희성의 시가 내장하고 있는 민중시로서의 특성을 작품 속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밀린 월급 달라고 주인 먹살 잡고/ 울분 터뜨려 제 손 찌던 용칠이/ 펄펄 끓는 쇠물에 팔을 먹힌 용칠이/ 송두리째 먹히고 떠나버린 용칠이/ 용칠이 생각을 하며 쇠를 친다/ 나 혼자 대장간에 남아서/ 고향 멀리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며/ 식모살이 떠났다는 누이를 생각하며/ 팔려가던 소를 생각하며/ 추운 만주벌에서 죽었다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밤새도록 불에 달군 쇠를 친다

- 정희성, 「쇠를 치면서」 부분

이 시에는 노동자의 일상과 꿈과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대장간”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대장간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용칠이는

17) 김용락은 정희성의 시를 “단아한 서정과 절제 있는 지성이 서로 탄력 있게 결합”한 서정적인 민중시로 평가했으며, 이동순은 ‘이념적 지향성과 시적 감정이 적절히 융해된 시’로 평가했다.(김용락, 「70년대 민중시의 정론성- 정희성의 시세계」, 『문예미학』 제9집, 문예미학회, 2002, p.111. 이동순, 「정희성 시와 소통의 방법」, 『한국문화기술』 제3호,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7, p.166.) 정희성 시의 이와 같은 성격은 경직화되어 가던 1970년대 민중시가 그 한계 극복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비록 쇠를 다루는 힘든 노동으로 생활하지만, “돈벌어 결혼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다. 그는 요술쟁이처럼 쇠를 다루어 “온갖 잡것” 그러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만들어내는 능력자다. “쇠”는 다루기 쉽지 않은 금속이다. 뜨거운 불에 달구어서 계속 담금질을 해야 원하는 형태를 내어주는 금속이어서 쇠를 치는 일에는 고된 노동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용철이는 사랑하는 “분이”와 함께 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성실하게 쇠를 친다. 그러나 월급을 미루는 주인의 횡포에 맞서다 “제 손 찌고” “씻물에 팔을 먹”히는 사고를 당한 뒤 결국 대장간을 떠나게 된다.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자의 권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믿는 지금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인데,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 그리고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정부의 1970년대 사회야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등에 업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것은 물론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용철이의 주인은 대장간 주인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고 용철이가 떠난 뒤 대장간에 남은 것은 그가 주인의 먹살을 잡고 터뜨렸던 “울분”과 “나”뿐이다. 화자의 기억 속에 남은 용철이의 울분은 어느새 화자에게로 전이된다. 용철이가 떠난 대장간에서 이제 화자 혼자 남아 쇠를 친다. 타향에서 외롭게 쇠를 치고 있는 화자 역시 용철이 못지 않은 고된 삶을 살고 있다. “나”에게는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과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나”는 고향을 떠났으며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었다. 고향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의 정체성과 자기 정체성 형성의 터전이 된다.¹⁸⁾ 고향은 이처럼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장소로 기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이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화자 역시 고향에서 떠나와 타지에서 쇠를 다루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다시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용철이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꿈 역시 좌절되고 말 것임을 확인했기에 가슴에 울분을 담아 쇠를 친다. 화자에게로 전이된 “울분”은 처음에는 용철이의 것이었으나 고향 상실과 이에 따른 가정의 해체로 인해 어느새 화자의 것이 된 것이다. 화자는 용철이와 자신의 가족 생각에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쇠를 치면서 분노를 내면화한다. 화자는 용철이와 자신이 속해 있는 노동현실이 노동자의 힘만으로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쇠를 치면서」에 나타나는 장소는 대장간이라는 일상적 삶이 이어지는 장소인 반면, 「어두운 지하도 입구에 서서」에는 역사적인 장소가 등장한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의 중심부에 속하는 광화문 광장과 왕이 거처하던 옛 궁성이 그것이다.

광목푹 찢어 펄럭이며/ 피 문은 팔뚝 함께 일어서/ 만세 부르던 이 광장/
길을 걸으며 나는 늘/ 역사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종합청사 너머로 해가
기울면/ 조선총독부 그늘에 잠긴/ 옛 궁성의 우울한 담 밑에는/ 위키토키
로 주고받는 몇 마디 암호와/ 군가와 호루라기와 발자국소리/ 나는 듣는다,
<...> 나는 침침한 지하도 입구에 서서/ 어디론가 끝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을 본다/ 건너편 호텔 앞에는 몇 대의 자동차/ 길에는 굼주린 사람 하나
쓰러져/ 화단의 진달래가 더욱 붉다.

- 정희성, 「어두운 지하도 입구에 서서」 부분

18) 전광식, 『고향』, 문학과학지성사, 1999, p.28.

이 시에 등장하는 “광장”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다. 이곳은 피를 흘리면서도 만세를 불렀던 조선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광장”은 “종합청사”, “조선총독부”, “옛 궁성의 우울한 담” 등을 고려해볼 때 광화문 광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역사적 장소인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의 박수소리에 놀라 날아오르는 비둘기떼를 본다. 이 장면에서 광목을 찢어 흔들며 만세를 부르던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를 흘렸던 장엄한 역사의 현장인 “광장”에서 화자는 비둘기떼같이 무언가에 놀라 소리치며 달아나는 ‘지금, 여기’의 민중을 본 것이다. 현재 민중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위키토기로 주고받는 몇 마디 암호와/군가와 호루라기와 발자국소리”, “신문사를 가리키며 꺾꺾대던 그 웃음” 등이다. 인용한 시구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1970년대의 군사정권은 물리적인 탄압으로써 국민들의 불만과 투쟁을 제압하고 “신문사” 등의 언론을 장악한 채 정부의 모든 정책에 순응하도록 요구했다. 화자가 목도한 이러한 현실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탄압했던 일제의 모습과 중첩되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 만세운동을 벌였던 역사의 현장에서 화자는 “피가 솟구치”는 분노를 느낀다. 화자의 분노는 “이 광장”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자유를 되찾는 투쟁(“만세”)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에서 화자의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특히 시의 마지막 세 개의 행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시인은 “호텔”과 “길”, “자동차”와 “굶주린 사람”의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고도의 산업화가 낳은 ‘빈부격차’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산업화 정책의 수혜자인 자본가들은 호텔에서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지만, 노동자와 농민들은 산업화 정책에서 소외되

어 궁핍한 삶을 이어나간다. 이 시는 한 사회 속에 존재하는 두 개의 현실을 극명한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 제시된 “더욱 붉”은 “진달래”는 빈부격차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 그리고 끓어오르는 화자의 분노를 드러내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두운 지하도 입구에 서서」는 사회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강한 어조와 거친 표현으로 직접 드러내지 않고 “광장”이라는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소환하고, “호텔”과 “길”이라는 익숙한 장소의 극명한 대비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희성의 민중시는 투쟁적인 어조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대신 민중의 삶에 내재된 고통과 슬픔의 정서를 서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III. 장소 회복을 위한 저항과 투쟁

민중은 지배를 받는 자로, 어떤 특수 집단의 억압과 물신의 폭력에 의해 고통 받는 자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비애를 축적하면서 축적된 비애로부터 부정과 저항으로의 전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¹⁹⁾ 2장에서 살펴본 민중은 억압과 폭력에 의해 고통받는 자로서의 민중이었다. 일상적 장소의 훼손에 고통을 당하고, 그에 따른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내면화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3장에서는 살펴볼 시들은 보다 주체적이고

19) 성민엽, 『민중문학론』, 문학과지성사, 1984, p.151.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존재, 즉 훼손되거나 상실된 참된 장소²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 준다.

잘있거라/ 낮게 기운 판잣집/ 무너져앉은 울타리마다/ 바람은 끝없이 펄럭
거린다 <...> 고개를 숙여/ 내 초라한 그림자에 이별을 고하고/ 눈을 들어
이제는 차라리 낫선 곳/ 마을과 숲과 시뻘건 대지를 눈물로 입맞춘다/
온 몸을 내던져 싸워야 할 대지의 내일의/ 저 벌거벗은 고통들을 끌어안는
다/ 미친 반역의 가슴 가득 가득히 안겨오는 고향이여/ 짙은, 짙은 흙냄새
여, 가슴 가득히/ 사랑하는 사람들, 아아 가장 척박한 땅에/ 가장 의연히
버티어선 사람들/ 이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금 피투성이 쓰러린
긴 세월을/ 굳게 굳게 껴안으리라 잘있거라

- 김지하, 「결별」, 부분

이 시에서는 두 장소가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준다. 떠난 ‘도시’와
가 닿고자 하는 ‘고향’이 그것인데, 이 두 장소는 도시와 “짙은 흙냄새”
나는 시골이라는 장소의 대립 외에도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대립과 함
께 절망과 희망이 맞서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대립 구도는 화자가 도

20) ‘참된 장소’란 진정한 장소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에드워드 켈프는 진정한 장소감에 대해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 <중략> 집이나 고향, 혹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에드워드 켈프,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p.150.)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자기의 장소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편안함과 익숙함, 그리고 외부 위협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보통 가족들이 있는 집이나 자신이 자란 고향 마을에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참된 장소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닌,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집’과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와 고향에 대해 갖는 장소감을 잘 보여준다. 화자는 지금 피투성이의 “청춘”으로 살았던 도시를 뒤로 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²¹⁾ 화자가 떠나온 도시는 “피투성이 내 청춘”, “판잣집”, “무너져 앉은 울타리”, “땀아 빠진 작업복”, “오랜 통곡”, “설움의 새파란 불길” 등의 표현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독한 가난과 힘겨운 노동, 그리고 설움의 통곡으로 점철된 장소이다. 상처와 고통뿐이었던 도시에서 화자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기보다 “외치고 외치고/ 짓밟히고 짓밟히고” “찢기고/ 아편을 찢리”는 삶을 살았다. 이 싸움은 화자 개인의 삶을 지키려는 치열한 투쟁이면서 한편으로는 민중을 위한 투쟁이었다. 화자가 “내일의 저 멀거벗은 고통들을 끌어안”고자 한 점과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에서의 삶과 투쟁 역시 화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도시에서 청춘의 날들을 피투성이로 살면서 “오랜 통곡”과 “설움”에서 오는 분노(“새파란 불길”)를 “외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무거운 낙인 아래 이윽고 잠들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시에서의 투쟁은 실패로 끝이 난다. 이에 화자는 다시 “온몸을 내던져 싸워야 한 대지”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실패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몸으로 싸우기 위해

21) 이영숙·이승하의 김지하의 공간의식을 “‘돌아갈 수 없음’으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불귀와 ‘돌아가지 않음’으로 여전히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미귀, ‘돌아갈 길 없음’으로 영원히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귀무”로 각각 구분하면서 불귀·미귀·귀무를 김지하 시가 지향하는 원형적 공간에 대한 환유이며 김지하의 ‘환고향 의식’은 나그네의식을 동반하고 있다(이영숙·이승하, 「김지하 시의 공간의식 연구 -불귀·미귀·귀무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3집, 한국비평문학회, 2009, pp.400-401.)고 한 설명에 따르면 「결별」의 화자가 고향으로 향하고 있으나 아직 고향에 도달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있다는 점에서 정주지를 갖지 못한 ‘나그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다. 척박한 땅이지만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버티어선 고향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투쟁의 의지를 다진다. “나는 이웃인 인간을, 억압받고 수탈되어 고통과 모멸 속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간들을 온몸으로 뜨겁게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스스로 설정한 나의 인간적인 과제의 전부이다.”²²⁾라고 한 김지하의 발언은 「결별」에서 화자가 도시에서의 처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일어나 고향으로 향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식인 김지하는 관념과 추상을 통해 민중을 이해하고 민중의 삶을 그리지 않았다. 그의 정체성이 비록 민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최소한 민중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온몸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시인이다. 시 「결별」은 이러한 시인의 정신을 잘 보여준 작품이다.

김지하 시의 시적 주체가 스스로 투쟁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존재라면 신경림 시의 주체는 민중들의 요구와 자기성찰을 통해 각성하게 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가는 존재로 나타난다. 다음 작품들에서는 시적 주체의 변화와 행동을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화자를 앞으로 밀고 있다.

– 20년이 지나도 고향은/ 달라진 것이 없다 가난 같은/ 연기가 마을을 감고/ 그 속에서 개가 짖고/ 아이들이 운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외쳐댄다/ 말하라 말하라 말하라/ 아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 신경림, 「시제」, 부분

친구여 너는 부르짖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어두운/ 거리에 깔리는 저 아우성을/ 들으라고// 친구여 한밤중에도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라 일어나

22) 김지하, 『남녘땅 뱃노래 -김지하 이야기 모음』, 두레, 1985, pp.47-48.

라 외쳐대는 친구여

- 신경림, 「친구여-『씨을의 소리』 창간 7주년에 부쳐」, 부분

나는 안다 많은 형제들의 피와 눈물이/ 내 등뒤에서 이렇게 아우성이 되어/
내 몸을 밀어대고 있는 것을

- 신경림, 「군사에서」, 부분

위 작품들에서 고향 사람들과 많은 형제들과 친구들이 화자에게 계속 “말하라”, “일어나라”고 외치고 “아우성”이 되어 화자의 몸을 밀어댄다. 그럼에도 화자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한다. 고향 사람들이나 형제, 친구들에게 지식인인 화자는 자신들의 “피와 눈물”의 의미와 억울한 처지를 대변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말을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한다. 그러나 화자는 아무말도 할 수가 없다.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없는 서발턴²³⁾이기 때문이다. 서발턴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나 친구,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화자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23) ‘서발턴’ 개념에 대해 안토니오 그람시는 “서발턴 집단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한 사회에서 헤게모니 집단을 제외한 종속집단이라는 포괄적인 의미”(강옥초,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 제82집, 역사교육연구회, 2002, p.139. 재인용)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발턴 개념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계급, 젠더, 민족, 종교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종속적 지위에 처해 있는 모든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정윤길, 「스피박의 서발턴 이론과 소통의 문제」, 『인문과학연구』 제3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222.) ‘서발턴’이 종속적 지위에 처해 있는 모든 집단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農舞』와 『새재』에 나타나는 농민과 노동자, 장꾼과 도시빈민 등도 서발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적 화자를 포함하여 ‘말할 수 없는’ 농민, 노동자, 도시 빈민 등을 모두 포괄하여 서발턴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빼적이는 강의실 뒷자리에서/ 이슬 깔린 차가운 돌층계 위에서/ 우리들은
 처음 만났다/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에서 온 친구들/ 비와 바람과
 먼지 속에서/ 처음 우리는 손을 잡았다/ 아우성과 욕설과 주먹질 속에서
 <...> 한밤중에 일어나 손을 펴본다/ 우리의 땀속을 흐르는 것을/ 본다 솟
 구쳐오는 아우성소리/ 어둠 속에 엉겨드는 그것들을 본다/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에서/ 비와 바람과 먼지 속에서/ 향수와 아쉬움과 보람 속에서

- 신경림,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다」 부분

신경림 시의 시적 주체는 자신이 서발탄이라는 사실과 서발탄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성찰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되찾고자 한다.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는 것은 화자 개인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우성소리”라는 집단의 목소리라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에 같은 목소리를 가진 “우리”가 있다. 한 개인으로서의 그들은 “분필가루 허연” 손의 시골 교사, 강원도 산읍에서 “생선가게”를 하는 사람, 충청도 산골에서 정소미를 하는 사람, “공장에서 광산에서 또는 먼 나라에서” 일하는 친구들로 모두가 힘없는 서발탄이다. 그러나 화자는 자기성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땀속에 흐르는 민중의 “아우성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하지 못하는 서발탄에서 행위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주체의 각성과 변화는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결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중의 아우성 소리가 화자에게 “말하라”, “일어나라”고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신경림 시의 시적 주체의 변화는 「갈길」의 행위하는 민중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녹슨 삽과 썰이를 들고 모였다/ 달빛이 환한 가마니 창고 뒷수풀/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맹세하다가/ 어깨를 끼어보고 비로소 갈 길을 안다/ 녹슨 삽과
 팽이도 버렸다/ 읍내로 가는 자갈 깔린 냇길/ 빈주먹과 뜨거운 숨결만 가지
 고 모였다/ 아우성과 노랫소리만 가지고 모였다

- 신경림, 「갈길」 전문

이 시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권력의 힘에 저항하기 위해 무기가 되기에는 허술해 보이는 낡은 농기구들을 들고 “가마니 창고 뒤편”에 모인다. 농민들이 모인 밤이라는 시간과 창고 뒤편이라는 장소는 힘없는 약자로 살아가는 농민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²⁴⁾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사회에서의 농촌 문제는 산업화가 안고 있는 문제와 직결된다. 부의 편중화와 분배의 불균형적인 문제, 그리고 소외로 인한 농촌 사회의 붕괴는 결국 농촌의 공동체와 가족 해체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빛을 내어 농사를 지어도 다시 빛이 쬔여가는 상황 속에서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도시로 식모살이를 가거나 공장에 들어갔다. 도시로 떠난 사람들 역시 도시의 시민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도시빈민으로 살아갔다. 이런 현실 속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황폐화시킨 폭압적 현실에 대해 적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땅을 섬기며 살아온 순박한 농민들이 “뉘우치고 맹세를 하고 서로 어깨를 끼어보는 모습들에서 이러한 행위들

24) “수풀”은 풀이나 나무, 덩굴 따위가 한데 엉켜 있는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이다. 그런데 여기에 ‘앞’과 대비되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뒤편”이 수풀 앞에 붙음으로써 이 장소가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공간이 아니라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장소로서의 특징을 드러내준다.

이 순간적 감정의 폭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은 투쟁을 위해 삼과 켤이를 들었으나 곧 그것을 버리고 “빈주 먹과 뜨거운 숨결”만을 가지고 투쟁에 나선다. 그것은 피를 흘리는 것만이 투쟁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투쟁이 지향하는 것은 투쟁 그 자체가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시제』)는 고향 대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집’으로서의 고향을 되찾는 것이다. 오로지 뜨거운 “아우성과 노랫소리만”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이들은 “산다는 일의 고통스러운 몸부림” 속에서도 봄을 알리는 “까치소리”(『까치소리』)를 들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처럼 신경림의 시에서는 미약하기는 하나 “우리”가 가진 아우성의 힘을 통해 장소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희성 시의 경우에는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우리”의 집단적인 투쟁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핍박에 대한 우회적인 저항과 치열하고 끈기 있는 개인의 투쟁을 보여준다. 정희성은 『답청』의 후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주로 내가 사는 시대의 모순과 그 속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관해 써왔”으나 “진정한 신념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데 이르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에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슬픔이 어느때가는 밝은 웃음으로 꽃필 것임을 나는 믿는다.”고 했다. 이 발언 속에서 민중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인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은 민중을 향한 시인의 깊은 애정과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보내는 성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²⁵⁾ 그러면 정희성 시인이 “믿는다”고 한 민중들

25) 김종철은 『저문 강에 삼을 씻고』의 「跋文」에서 “정희성의 시에서는 도처에 분노가 번뜩이고 ‘밀바닥 인생’들에 대한 애정이 보이고, 그들의 싸움을 향해 보내는 성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김종철, 『저문 강에 삼을 씻고』, 「跋文」, 창비,

의 삶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작품을 통해 확인해보기로 한다.

풀을 밟아라/ 들녘엔 매맞은 풀/ 맛을수록 시퍼런/ 봄이 온다/ 봄이 와도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봄은 스스로 풀밭을 이루었다/ 이 나라의 어두운 아
희들이/ 풀을 밟아라/ 밟으면 밟을수록 푸른/ 풀을 밟아라

- 정희성, 「답청」 전문

‘답청’은 삼월 삼짇날, 즉 음력 3월 3일에 들에 나가 파랗게 난 풀을 밟고 노는 우리나라 풍속이다. 이때는 추위가 지나가고 모든 생명들이 활기를 띠는 그야말로 만물이 소생하는 때인 것이다. 풀이 스스로도 잘 자라는 시기에 풀을 밟는 것은 땅을 다져 풀이 더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시에 나타나는 풀을 살펴보면, “매맞은 풀/ 맛을수록 시퍼런”이라는 표현에서 이 풀이 매맞는 존재들임을 알 수 있다. 들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밟고 꺾박당하며 살아가는 존재, 즉 이 “풀”은 민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김용락²⁶⁾의 설명처럼 정희성의 “풀”은 김수영의 “풀”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답청」의 ‘풀’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김수영의

1978(1993년 개정판, p.103.) 한편 김종운은 정희성의 “시적 관심의 초점은 민중적 삶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는 정희성 시인이 그려내는 시의 세계가 민중의 삶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김종운, 「정희성론- 민중적 서정과 간결성」, 『현대문학의 연구』 제1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1999, p.192.)

26) 김용락은 “민중시에서는 풀=민중이라는 식의 해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전체하면서, 정희성의 「답청」의 풀 역시 민중의 의미로 해석한다. 그는 ‘답청’의 의미를 “풀을 밟음으로써 풀의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예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락, 「70년대 민중시의 정론성 -정희성의 시세계」, 『문예미학』 제9집, 문예미학회, 2002, p.117.)

“풀”(「풀」)과는 달리, “매맞”은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 “풀”은 때리는 때에 순응하는 나약하기만한 존재는 아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행위하지는 않으나 “풀”은 억울한 핏박에 나름의 방법으로 맞서는 존재이며, “뺨으면 뺨을수록” 더 강해지는 근성을 가지고 있어 뺨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이다.

“풀”이 가지고 있는 내적 힘을 신뢰하는 화자는 “어두운 아희들”에게 “풀을 뺨아라”고 거듭 명한다. 여기에서 “어두운 아희들”은 “매맞은”의 대척점에 있는 ‘매를 때리는’ 존재들이다. “아희들”을 수식하고 있는 “어두운”은 이들이 선량한 시민이 아닌 부패한 권력자 또는 부조리를 일삼는 존재들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들을 굳이 “아희들”로 표현한 것은 민중을 핏박하는 이들이 미성숙한 존재들임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민중을 핏박하는 존재들이 사실은 미성숙한 존재들이라는 점과 그들이 민중을 핏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중의 힘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뺨”히는 것이 곧 권력과 폭력에 우회적으로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풀이 이처럼 뺨히고 뺨혀서 더욱 더 강건한 존재가 된다면 들녘은 머지않아 풀들이 일어서는 장소가 되고, 마침내는 짓밟는 자들로부터 “들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밤에 일어나/ 얼음을 끈다/ 누구는 소용없는 일이라지만/ 보라, 얼음 밑에서 어떻게/ 물고기가 숨쉬고 있는가/ 나는 물고기가 눈을 감을 줄 모르는 것이 무섭다/ 증오에 대해서/ 나도 알 만큼은 안다/ 이곳에 살기 위해/ 온갖 굴욕과 어둠과 압제 속에서/ 싸우다 죽은 나의 친구는 왜 눈을 감지 못하는가/ 누구는 소용없는 일이라지만/ 봄이 오기 전에 나는/ 얼음을 꺼야 한다/ 누구는 소용없는 일이라지만/ 나는 자유를 위해/ 증오할 것을 증오한다

- 정희성, 「이곳에 살기 위해」 전문

이 시는 한 개인의 처절한 투쟁을 보여준다. 이 투쟁은 “굴욕과 어둠과 압제”에 맞서는 행위로서, 그것에 저항하다 죽은 친구와 또다른 희생자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결국에는 모두가 “이곳에 살기 위해” 벌이는 생존의 투쟁이다. 즉, “이곳”은 화자에게 생존의 장소인 것이다.

먼저 화자의 진술을 통해 “이곳”의 성격을 살펴보면, 화자가 살아가는 이곳은 “온갖 굴욕과 어둠과 압제”가 “물고기”에 비유된 민중을 억압하는 곳이다. 민중(“물고기”)은 폭압적인 현실(“얼음 밑”) 속에 간헐고통을 받으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고자 눈을 감지 않는데, 화자는 부릅뜬 눈에서 민중의 “증오”를 읽는다. 이 “증오”는 “이곳에 살기 위해” 싸우다 눈을 뜨고 죽은 친구의 것이며, 굴욕과 압제 속에서도 “숨쉬”기를 계속 해야만 하는 민중들의 것이다. 화자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결코 “눈을 감을 줄 모르는” 민중의 정신을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을 동력으로 현실과 맞서기로 한다. 그리고 기꺼이 “얼음을 꺼”는 일을 한다.

한 개인이 폭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얼핏 어리석은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이 하는 저항과 투쟁이 승리로 귀결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17행의 길지 않은 시에서 3행에 걸쳐 “누구는 소용없는 일이라지만”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화자 역시 저항의 “소용”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물고기”가 “자유”롭게 숨쉴 수 있도록 얼음을 끄는 일을 선택한다. 이 선택의 바탕에는 민중들의 감지 않는 “눈”과 투쟁으로 목숨을 잃은 친구의 감지 못한 “눈”, 그리고 그들의 “증오”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동력이 되어 화자 스스로 행위하는 민중으로 서게 된 것이다.²⁷⁾ 정희성이 이와 같이 주체적인 민중의 모습을 그려낸 것은 『저문 강에 삼을 씻고』의 「후기」에서 “이

땅의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무언가를 이룩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양심적인 사람들의 문학과 행동을 뒤늦게나마 자각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는 고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살기 위해」에서 보여준 변화, 즉 민중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폭압적 현실에서 오는 고통과 증오까지도 정직하게 그려내는 변화에서 시인의 “자각된 눈”을 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 살기 위해」에서 보여주는 한 개인의 미약한 투쟁은 ‘지금, 여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벌이는 사투이며, 눈을 감지 못하는 민중과 함께 살아갈 일상적 장소로서의 “이곳”을 지키려는 결의의 행위이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봄”을 수동적인 태도로 기다리기보다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얼음뿐인 “이곳”을 다시 삶의 장소로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의 몸짓이다. 이 투쟁이 비록 “우리”의 집단적인 힘을 가진 연대적 투쟁이 아닐지라도 “자유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이 작은 투쟁은 “소용” 있는 일이 될 것이다.

IV. 참된 장소의 회복과 현실극복 가능성

장소란 그곳에 깃들어 사는 사람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그

27) 조연향은 “『답청』의 고전적·설화적 상상력에서 벗어나 『저문 강에 삼을 씻고』에서는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한다.”고 정희성 시의 변화를 설명했다.(조연향, 「정희성 시 연구: 시세계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pp.41-42.) 「이곳에 살기 위해」에서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민중을 보여준 것은 정희성 시인이 『저문 강에 삼을 씻고』에 이르러 스스로 주체적인 민중상을 세운 변화의 결과로 보인다.

사람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²⁸⁾ 시에 나타나는 장소 역시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뿐 아니라 일상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는 개인 또한 집단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준다. 이에 본 연구는 1970년대 민중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중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현실인식 및 현실 대응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1970년대 민중시를 대표하는 신경림·김지하·정희성의 시에 나타나는 장소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시에서 폭압적 현실에 의해 훼손되거나 빼앗긴 삶의 장소와 관련하여 드러나는 민중의 현실인식과 현실 대응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참된 장소의 회복 가능성을 진단해봄으로써 폭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시인의 1970년대 시집에 나타나는 장소를 살펴본 결과, 그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나는 ‘폭압적 현실에 의해 훼손되거나 빼앗긴 장소’이며, 다른 하나는 ‘참된 장소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장소’이다.

먼저 삶의 장소가 훼손됨으로써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범했던 일상 역시 훼손된 형태로 나타나는 장소를 살펴보면, “폐광”, “방앗간 뒷방”, “빈 들녘”, “검은지붕”과 “굴뚝”, “대장간”, “광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장소는 민중들이 일하는 일터와 관련된 장소(“폐광”, “방앗간 뒷방”, “빈 들녘”, “검은지붕”, “굴뚝”, “대장간”)이거나 이동 또

28) 렐프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존재와 어디에서, 어떻게 관련을 맺든지 간에, 정체성은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고 한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체성은 일상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는 사람의 정체성, 식물의 정체성, 장소의 정체성, 심지어 국가의 정체성까지도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p.108.)

는 산책과 같은 평범한 생활 속의 장소(“광장”)이다. 평범한 일상적 장소를 훼손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당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산업화 정책이었다. 정부 주도의 산업화는 자본과 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농민과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농촌과 도시 변두리 같은 삶의 장소는 크게 훼손되었고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일상적 장소의 훼손은 생명(신경림, 「폐광」, 김지하, 「매장」)과 신체 일부(정희성, 「쇠를 치면서」)의 훼손으로 이어지거나, 일상적 삶(신경림, 「겨울밤」, 김지하, 「밤」, 정희성, 「어두운 지하도 입구에 서서」)이 파편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경림·김지하·정희성의 시에서 보여주는 삶의 장소는 그곳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민중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선명한 장소 이미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민중이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피폐한 삶 속에서 이는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내면화하는, 서발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중의 모습은 그들이 ‘지금, 여기’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는 훼손된 장소를 다시 참된 장소로 회복하기 위해 민중이 투쟁을 벌여나가는 곳으로, “고향”, “가마니 창고 뒷수풀”, “들녘” 등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장소뿐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경기도’ 등의 지역,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 대신 대명사를 통해 제시된 실존적 삶의 장소인 “이곳”이 있다. 이 장소들은 1970년대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면서 장소 회복을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장소이다. 이들 장소에서 노동자(김지하, 「결별」)와 도시빈민(신경림, 「까치소리」)과 농민(신경림, 「갈길」, 정희성, 「답청」)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키는 폭압적 현실과 싸우기 위해 “온 몸을 내던”(김지하, 「결별」)지는 투쟁을 하고 “빈주먹과 뜨거

운 숨결”(신경림, 갈길)로 맞서 싸우고자 한다. 이처럼 김지하와 신경림 시에 나타나는 민중들은 적극적인 투쟁 행위를 보여주는데, 반면 정희성 시의 민중은 스스로 “뺨”히고 “매맞”(정희성, 「답청」)음으로써 폭압적 현실에 맞서는 소극적인 투쟁을 보여준다. 적극적인 투쟁이든 소극적 투쟁이든 이들이 온몸을 던져 싸우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이나 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핍박과 차별과 소외 없이 소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참된 장소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장소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는 정희성의 「이곳에 살기 위해」이다. 이 시의 장소 “이곳”은 민중의 현실 인식은 물론 투쟁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물론 이 시에는 연대의 힘을 발휘하는 “우리”라는 집단의 투쟁 대신 한 개인의 소극적인 투쟁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투쟁이 “이곳에 살기 위해”서라는 가장 순수한 지향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자유를 위해” 현실을 피하지 않는 민중의 투쟁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민중 투쟁의 지향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신경림·김지하·정희성의 시에 나타나는 장소들은 대체로 폭압적 현실에 의해 훼손된 이미지로 드러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참된 장소의 회복을 위해 민중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이 된다. 개인 또는 집단으로 온몸을 던져 저항하고 투쟁하는 민중들의 행위에서, 훼손된 장소를 삶의 터전인 참된 장소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가능성은 세 시인의 시에서 온몸을 내던지는 민중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그들이 놓치지 않고 품어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우리는 민중이 참된 장소의 회복을 통해 폭압적 현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봄”(신경림, 「까치소리」)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1970년대의 민중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김지하, 『黃土』, 풀빛, 1970.
 신경림, 『農舞』, 창작과비평사, 1975.
 _____, 『새재』, 창작과비평사, 1979.
 정희성, 『답청』, 샘터, 1974.
 _____,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창작과비평사, 1978.

〈논문 및 단행본〉

- 강옥초, 「그림시와 ‘서발탄’ 개념」, 『역사교육』 제82집, 역사교육연구회, 2002, pp.135-161.
 강정구, 『신경림과 민족문학 다시 읽기』, 국학자료원, 2014.
 김나현, 「1970년대 민중시의 주체 구성 - 민중시를 둘러싼 몇 가지 분할에 대하여」, 『한국시학연구』 제53집, 한국시학회, pp.9-34.
 김용락, 「70년대 민중시의 정론성 - 정희성의 시세계」, 『문예미학』 제9집, 문예미학회, 2002, pp.111-126.
 김지하, 『남녘땅 뱃노래 - 김지하 이야기 모음』, 두레, 1985.
 도린 매시, 정현주 옮김,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류찬열, 「1970년대 한국 현대시의 계보와 유형 연구를 위한 시론」, 『우리문학연구』 제24집, 우리문학회, 2008, pp.203-221.
 마르크 오제, 이상길 · 이운영 옮김, 『비장소』, 아카넷, 2017.
 박연희, 「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시 담론」, 『상허학보』 제41집, 상허학회, 2014, pp.501-538.
 서준섭, 「현대시와 민중 - 1970년대 민중시에 대하여」, 『문학사와 비평』 제3집, 문학사와비평학회, 1994, pp.35-55.
 성민엽, 『민중문학론』, 문학과지성사, 1984.
 신경림, 『문학과 민중』, 민음사, 1977.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오수현, 「1970년대 민중시의 구술성에 대한 소론 - 신경림의 『새재』와 김지하의 『오적』을 중심으로」, 『문예시학』 제19집, 문예시학회, 2008, pp.43-62.

- 이동순, 「정희성 시와 소통의 방법」, 『한국문화기술』 제3호,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 연구소, 2007, p.166.
- 이영숙 · 이승하, 「김지하 시의 공간의식 연구 - 불귀 · 미귀 · 귀무를 중심으로」, 『비평 문학』 제33집, 한국비평문학회, 2009, pp.400-401.
- 이-푸 투안, 구동희 ·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 전광식, 『고향』, 문학과지성사, 1999.
- 정윤길, 「스피박의 서벌턴 이론과 소통의 문제」, 『인문과학연구』 제37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p.219-232.

Abstract

A Study on Places Described in People's Poetry in the 1970s

Jo, Hyo-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laces described in the people's poetry of Gyeong Lim Shin, Ji Ha Kim, and Hee Seong Jeong in the 1970s, and confirm the perception of and the means of coping with the realities by the people revealed through the places that have been damaged and taken from the people. This is a task of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restoration of the lost places. Places described in the people's poetry can be divided largely into 'places that have been damaged or taken by oppressive realities' and 'places undergoing struggles for restoration of truthful places'.

Places damaged or taken by outside forces are places related to the workplaces of the people or places in which ordinary and routine daily life activities are conducted. Damages to such ordinary daily life places lead to damages to life and body, and fragmentation of daily life. Accordingly, people experience rage and frustration due to such damages. However, such emotions cannot be expressed but become internalized. Images of people living as subalterns unable to express their minds illustrate how they perceive the realities. Other places are the venues for undergoing struggles to restore the damaged places into truthful places, and they include not only the places related to ordinary daily life but also regions such as Chungcheong-do, Gangwon-do, and Gyeongsang-do, etc. as well as 'this place' as existential places in which people strive to settle in for their lives. These are the places in which farmers, laborers, and the urban poor struggle against oppressive realities by dedicating themselves to restoring such places into truthful places as the basis of their lives' places.

It can be confirmed that although the people are angered and frustrated due to damages to these places, it is possible to restore the damaged places into truthful places through those who resist and struggle as individuals or in groups. Such possibility is presented specifically through the resistance and struggle of people who dedicated themselves as well as their hopes for the future.

Key Words : places, struggles, internalization, perception of realities, damages to places, restoration of places

조효주

소속 :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전자우편 : nook-2@hanmail.net

이 논문은 2022년 02월 11일 투고되어
2022년 03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2년 03월 28일 게재 확정됨.